

[필리핀, 2013년 12월] [농식품]

□ 농수산물 필리핀 수출 시 필수 요소

- 필리핀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적용이 되며,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HS Code)에 EK라 관세율의 차이가 남
-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CIF 가격) x 관세율'로 산출이 되며,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수입물품의 가격(CIF 가격)+ 관세) x 부가가치세율'로 산출 됨.
- 수입 통관 시 기초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L(운송 서류),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 등이며, 수입 물품의 용도 및 품목 분류에 따른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음
-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한-아세안 FTA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필리핀 세관당국에서 발급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AK Form)가 필요. 이는 관세율을 더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증명서보다는 한국세관에서 받은 증명서가 더 유용함
- 농수산물의 경우 필리핀은 식물 방역법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및 수입 금지 국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미리 '농림수산검역 검사 본부'에 수입이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함

□ 필리핀 마늘 산업의 강화 촉구

- 필리핀 북쪽 Luzon 주의 Ilocos에 위치한 농업 단지 관계자들과 Ilocos Norte 시의 상원의원 Imee Marcos는 약화된 마늘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할 5가지 문제를 발표하였음
- Ilocos 마늘 산업은 만연하는 밀수, 악화되는 마늘 농사 재료의 크기,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의 부족,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 작물 재배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 등이 상기 문제에 포함되었음
- Marcos 상원 의원은 정부기관 DA(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농부들로부터 항상 건의 되는 마늘의 작은 크기의 불규칙적인 유통에 관련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유통 관개 투자가 최대 수율을 가지고 성장하는 작물에 충분한 물 공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농업, 식품 부 상원위원회의 위원장인 Villar는 제기된 마늘 산업에 대한 우려는 마늘 및 양파의 수입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관행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에 대한 지원이 이행 될 것이라 언급하였음
- 현재 Batac시에 위치한 도매 시장에서의 Ilocos 마늘 가격은 200/kg 페소이며, 수입 마늘은 80/kg 페소에 판매되고 있음.
- Ilocos Norte 농업 부서 기록에 의하면, 지방의 19개 마을의 최소 3,907농가가 헥타르당 3.17 톤의 마늘 생산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필리핀 농업 발전 및 향후 대책 안

- 필리핀 농업은 전체 고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를 이끄는 기반 산업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국가통계조정위원회(NSCB)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국가 총생산 기여

수준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 하락해 왔음.

- 필리핀 농업부(DA;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산물 자급자족 프로그램 (FSSP; Food Staples Sufficiency Program) 으로 2016년 까지 농업 부문의 생산량을 국제 표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필리핀 정부는 2013년 6월 이후로 농수산업 기계화 법안(R.P Act 10601)을 발효함. 이 법안은 효율적이고 친 환경적인 기계와 장비를 농수산업에 도입 해 생산성의 증대를 목표로 함
- 현재 필리핀의 농업기계화 수준은 헥타르 당 1.1로 인도 및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 이는 베트남, 태국, 일본, 중국, 한국 등 이웃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짐을 볼 수 있음
- DA는 작년부터 쌀 생산의 자급자족을 위해 농장에 대한 기계화 지원을 시작해 전국의 쌀 농장 기계화에 드는 비용의 85%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오는 2016년까지 헥타르 당 2.0의 기계화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함
- 필리핀 농업기계 제조 협회(AMMDA; Agricultural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George Canapi 회장은 마닐라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농업기계 수입이 지난 3년간 평균 500여 개에 이르고 있다고 전함. 특히, 트랙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향후 기술력 있는 제품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필리핀 농업기계시장에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필리핀의 농업 기계화 수준]

국명	농업기계화 지수
일본	7.0
한국	4.1
중국	4.0
베트남	1.6
타이	1.6
말레이시아	1.5
인도	1.2
파키스탄	1.2
필리핀	1.1
방글라데시	1.0

[자료원 : 필리핀 농업개발센터(PhilMech)]

□ 필리핀 통상산업부, 한국 KOIMA와 MOU 체결

- 지난 7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주최로 한국-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수입업협회(KOIMA),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Philippine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필리핀 수출 협회(Philexport; Philippines Exporters Confederation Inc), 필리핀 식품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양국 간 무역역조개선을 통한 무역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 수입업협회-필리핀 통상 산업부 간 교류협력증진 및 외국인 투자 규제, 대외 무역, 관세 등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해,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1:1 수입상담회, 미디어 인터뷰 행사 등이 이루어짐.

- 필리핀 통산산업부 장관인 Gregory Domingo는 필리핀-한국간의 무역이 2007년 USD \$ 5.5 billion에서 2012년 USD \$7.4 billion로 증가한 수치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MOU 임을 강조하였음
- 한국은 필리핀에 수출하는 국가 중 6번째이며, 2011년 22억 달러(USD)에서 2012년 29억 달러(USD)로 증가하였음. 한편, 한국제품의 수입은 필리핀에서 5번째이며, 2011년 44억 달러(USD)에서 2012년 45억달러(USD)로 증가하였음

□ 필리핀 옥수수사료 한국 및 말레이시아에 수출

- 필리핀 농업부(DA;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한국에 옥수수 사일리지 (corn grains) 467톤의 성공적인 수출 이후, 50,000~100,000 톤의 수출을 설정함
- DA는 옥수수 사일리지 수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국가 식품 위원회(NFA; National Food Authority)와 조정함. DA 차관부 Edilberto De Luna는 현재 필리핀 내 옥수수 사일리지의 과잉 재배가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은 농부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라 발표함.
- 한국에 수출한 옥수수 사일리지는 4월에 24톤이 처음 수출되었으며, 그 이후 6월에는 69톤, 7월은 320톤, 8월에는 38톤이 수출되었음